

Sharp, 태양전지 유럽시장 진출

이태리 Ener와 합작 현지생산 ... 1500억엔 투자 2010년 48만KW

일본 Sharp가 유럽 2위의 전력기업인 이태리 Ener와 합작으로 유럽에서 태양전지를 생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태양전지 사업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관련기업이 해외로 생산을 확대하기는 처음이다.

Sharp의 투자액은 1500억엔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태리에 건설되는 합작공장의 생산능력은 세계 최대규모로, 2010년 여름 48만kW 수준에 달할 계획이다.

세계 2위의 태양전지 생산기업인 Sharp는 태양전지가 세계적인 경기후퇴 속에서도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로 세계 1위 도약을 노리고 있다.

태양전지에 대한 세계 수요가 2012년에는 2008년의 4배 수준인 1500만k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세계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독일과 이태리는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1/28>